<제8강_악에 대한 철학적 고찰>

권선징악에서의 악 개념

구연상(숙명여대)

이제까지 우리는 악이 뜻하는 바를 찾고자 했다. 과거 전통적 철학의 관점에서 악은 **책망(責望)을 받아도 싼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죄**를 짓거나 어떤 **큰 잘못**을 범(犯)하거나 **흠(欠)**이 생기는 바람에 받게 되는 **고통이나 벌 또는 재앙**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때 악은 근본적으로 마음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된다. 악은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착한 마음에서는 악이 나올 수 없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악행은 마음속 악에 그 **탓**이 있다. 악은 사람이 자신의 본디 착했던 마음에 **탈**이 나 **법이나 도덕에서 어긋나거나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만 착하게 쓴다면 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재해나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그 규모가 아무리 클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이 없는 곳으로부터는 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은 단순히 마음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한데 합쳐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만으로는 악이 일어날 수 없다. 게다가 악의 일어남이 반드시 **인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우리는 악이 실제로 일어났다손 하더라도 그 원인을 모두 알 수는 없다. 악의 일어남에는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가 놓여 있다. 저질러진 악은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저항되거나 '악'으로 선언될 때 비로소 악이 된다. 악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또는 인과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맞섬**을 통해 발견되고 물리쳐지는 것이다. 악은 당함의 가능성을 가진 누군가의 **본래적 권리를 앗아가는 일**이다. 악의 크기는 그 빼앗긴 본디 모습이 되돌아오거나 되찾아질 수 있는 만큼에 달려 있다. 누군가의 본디 모습이 결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을 때, 그 악은 가장 **크고 세며**, 그 본디 모습이 못쓰게 된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그 악은 **많고 넓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악은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그의 삶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는다. 탄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악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u>망가질 수</u> 있다. 바르게 서 있던 것은 <u>넘어지거나 쓰러질 수</u> 있고, 단단했던 것은 <u>물러져 허물어질 수</u> 있으며, 잘 짜였던 것은 느슨해져 <u>풀어질</u> 수 있고, 굳은 뼈대나 틀로써 만들어진 것은 <u>부서질 수</u> 있고, 몸을 갖춘 것들은 <u>무너질 수</u> 있고, 제 구실을 잘 하던 것들은 <u>끝장이 날 수</u> 있다. 이렇듯 악의 일어남의 특징은 저지레의 성격을 갖는다. **저지레**는 "고이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을 강제로 벌려 무엇인가를 빼냄으로써 그것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말한다.[1] **악행(惡行)**은 어떤 것을 망가뜨려 그것이 본디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짓을 일컫는다. 다만 이때 망가짐이 저절로 일어나거나 스스로 일으킨 것이라면 그것은 본래적 의미의 악이라고 말할 수

1 구연상 지음, 『철학은 슬기 맑힘이다』, 채륜, 2009, 115쪽.

없다.
우리가 악(惡)의 뜻하는 바의 밑그림을 비록 흐릿하게나마 그렸을지라도 그 뜻이 아직 뚜렷해지지 못한 까닭은 "악(惡)"이라는 낱말 자체가 이러한 악의 뜻들을 한 손으로 모두 잡을 수 있는 '생각의 손잡이'가 못 되기 때문이다. 과연 악의 뜻들을 '모두-잡이'로써 그러안을 수 있는 낱말이 우리말에 있는가? 우리가 이미 잘 써오던 낱말인 '악'을 버리고 새 낱말을 찾으려 하는 일은 어쩌면 섞갈림만 키울 뿐 악을 이해하는 데 아무 도움이 못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시도가 헛된 일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오래된 낱말인 '악'의 뜻과 그 문제점부터 살펴보는 게 먼저다. 만일 "악(惡)"이라는 낱말이 너무 많은 뜻을 한데 뭉뚱그려 놓은 것이라면, 우리가 그 뜻들 가운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악'이라고 여기는 뜻만을 따로 도려내어 새로운 낱말로 나타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1. 악(惡)이란 낱말의 뜻 덩굴

가) 악함은 나쁨과 다르다

하나의 낱말에는 여러 뜻이 뒤섞여 놓일 수 있고, 그 갈래진 뜻들이 한데 꼬여 있을 수도 있고, 마치 꽈배기처럼 마주 뒤틀려 있을 수도 있다. 낱말 속에 갈무리된 뜻들은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도록 함으로써 가지런히 되새길 수 있다. 낱말의 뜻들은 다른 낱말들의 도움으로써만 스스로를 내보일 수 있다. 낱말들 사이의 짜임새와 걸림새 또는 이음새와 '사무침-새(소통, 疏通)'는 **말의 살아있는 지도(地圖)**로써 나타낼 수 있다. 낱말이 나타내 보이는 세계는 그 뜻들의 지형도(地形圖)에 의해 펼쳐진다. 낱말의 매듭으로써 만들어지는 뜻의 세계는 그 마디가 올바로 짜일 때 비로소 탄탄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악(惡)이라는 낱말에 짜 얽힌 뜻들에 대한 매듭풀이를 해 보고자 한다.
"**악**"이라는 낱말은 흔히 "**선(善)**"의 **반대말**로 쓰인다. '선'이 좋음의 뜻으로 쓰일 때, '악'은 나쁨의 뜻으로 쓰이고, '선'이 착함의 뜻으로 쓰일 때, '악'은 **모짊, 못됨 또는 몹쓸 것**의 뜻으로 쓰이며, '선'이 잘함의 뜻으로 쓰일 때, '악'은 **못함, 못씀**의 뜻으로 쓰인다. 악은 명사(名詞)로서 도덕의 차원에서는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법의 차원에서는 법률을 어기거나 깨트리는 짓을 말하며, 영적 차원에서는 사람들을 죄악에로 이끌어 들이는 악마나 악령을 나타낸다. 반면 악에 의해 빚어진 상태는 "악하다"라는 형용사(形容詞)로써 말해진다. 악인(惡人)은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지 그 사람 자신이 악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악심(惡心)은 누군가 악한 짓을 꾀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을 말한다. 악이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로써 '일어나는 것'인 한, 실체(實體)로서의 악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실체로서의 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악의(惡意)"를 흔히 '**나쁜** 마음' 또는 '**좋지 않은** 뜻'으로 풀이한다. 이때 '악'은 나쁨이나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이때의 악의, 즉 '악한 뜻'은 '나쁜 마음'과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해(害)할 뜻' 또는 '몹쓸 마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해(害)**'가 어떤 것을 헐거나 뜯어내어 그것이 가지고 있던 본디 모습을

일그러뜨리거나 제값을 낮추는 일을 말한다면, '악한 마음(악의)'은 단순히 '나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남이나 다른 것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을 말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말은 악함과 나쁨이 서로 다른 것일 때만 맞는 말이 된다. 악함이 나쁨과 비슷한 뜻매김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 둘이 똑같은 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쁨의 뜻을 올바로 드러냄으로써 악함에 대한 깔끔한 뜻매김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쁨의 '맞짝-낱말'이 **좋음**이라면, 나쁨의 뜻은 좋음과 짝해서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좋다"는 말은『용비어천가』"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니."라는 글월에서 "둏다"로 쓰였는데, 그 뜻은 "활짝 피었다"이다.[2] 꽃이 활짝 피었으니 곧 열매가 잘 맺을 것이다. 좋음은 꽃과 같은 것이 그것의 본디 모습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뜻한다. 좋은 꽃을 피운 나무가 그 열매 또한 좋다면, 좋은 열매는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좋을 때만 가능한 셈이다. 좋은 사람은, 그의 좋음이 특정한 관점으로 좁혀져 있지 않은 한, 그의 태어남에서부터 현재까지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다 좋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람은 나무와 달리 그가 스스로 좋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과정이 다 좋을 필요는 없다. **좋음**은 어떤 것이 그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다 나은 상태' 또는 '가장 완전한 상태' 또는 '본디 모습'에 다다른 것을 말한다. 본디 모습에 다다름은 그 모습을 이룸이자 채움이다. 이때 좋음은 참과 같다. 좋은 것은 '차 나가는 것'으로서 무르익는 것이다. 좋음은 무르익음과도 같다.

반면 "**나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좋지 않다" 또는 "해롭다" 또는 "옳지 않다" 등으로 풀이되지만, 좋음에 맞대어 보자면, 조잡듦을 뜻한다. 조잡든 것은 꽃과 같은 것이 활짝 피지 못했거나 그 열매가 무르익지 못한 채 시드는 것을 말한다. **나쁨**은 좋은 상태에 미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3] 나쁜 것은 자신의 본래적 상태에 미치지는 못한 것을 말한다. 나쁜 것은 무르익지 못한 것이고, 그 자신의 참다운 모습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다. 나쁨은 미치지 못함 또는 다다르지 못함의 의미에서 '좋지 않음'과 같다. 나쁨은 좋음의 잣대로써 재어 말하자면 값의 낮음을 나타낸다. 나쁜 것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좋음의 정도에서 낮은 것을 말한다. 이는 나쁨이 좋음을 못 갖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뜻한다.

나쁨이 이렇게 좋음의 못 갖춘 상태를 뜻하는 한, 그것은 아직 악함이 아니다. 나쁜 것은 그것이 남의 좋은 것을 부수거나 그것을 빼앗아 제 것으로 삼을 때 악한 것이 된다. 나쁨은 어떤 것이 갖추었어야 할 그 자신의 본디 모습 또는 '보다 나은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악함**은 어떤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어떤 것에게 해(害)를 입히는 사건을 말한다.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악할 수 있다! 방금 우리가 뜻매김한 바에 따를 때, 사람이 두 다리를 잃는다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들려주는 바처럼, 그 일은 되레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조차 있다.

나) 악함은 미워함이나 싫어함과 다르다

---

2 구연상, 97 쪽 살핌.

3 구연상, 101 쪽 살핌.

악한 것은, 그것이 그 자체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남에게 해를 입히고 저지레를 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섬뜩할 수도 있지만 평범할 수도 있다. 그의 악함은 그가 저지른 어떤 몹쓸 짓과 그 결과에 의한 것이다. 악한 것은 불길하게 겁나는 것이고, 누구나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한 것에 맞닥뜨리면 겁남과 피하려 함의 기분이 솟구친다. 누군가 악한 일을 당하면 그는 그 **억울함** 때문에 부아가 치밀거나 분노(忿怒)와 원통(寃痛)의 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복수의 감정에 불타오르기도 한다. 한 소설의 주인공 초봉이의 입을 빌어 악에 북받쳐 오르는 고통의 단말마를 들어보자.

"분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 생김새부터 흉악한 저놈 장가 놈한테 이 욕을 보다니, 그러고서 속절없이 죽다니, 당장 식칼이라고 들고 쫓아가서 구렁이같이 징그럽고 미운 저놈을 쑹덩쑹덩 썰어죽이고 싶은 생각이 물끈물끈 치닫는다."[4]

초봉이는 자신을 강간한 장형보에 대해 악에 받친 **증오심(憎惡心)**을 폭발시킨다. 증오는, 이 낱말에 '악(惡)'이란 글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뼈에 사무칠 만큼의 미움이나 싫음을 뜻하지 그 자체로 아직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뜻하지 않다. **미움**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물리치려는 마음이 밖에까지 드러날 만큼 멀리하려는 마음을 뜻하고, **싫음**은 누구 또는 무엇을 달갑지 않게 여길 뿐 아니라 그것과의 만남을 더는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나 태도를 뜻한다. 하지만 미움이나 싫음은, 초봉이 자신의 저주를 말로만 되뇔 뿐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상대에게 악한 짓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초봉의 혀끝에서는 독설(毒舌)이 뿜어져 나오고, 그 눈초리에는 독기(毒氣)가 시퍼렇게 서려 있지만, 그녀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내린 마지막 결정은 자살 결심을 거두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다.
'악한 것'은 미움이나 싫음 또는 미워함이나 싫어함과 다르다. 미움은 흔히 고움과 대비된다. **고움**은 어떤 것이 갓난아이 살결처럼 부드럽고 꽃처럼 아름다우면서 본디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을 말한다. 고운 님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이일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자신의 말도 고분고분 잘 들어주는 님을 말하지만, 미운 님은 자신의 마음도 잘 몰라줄 뿐 아니라 자신의 말도 들어주지 않는 님을 말한다. **미움**은 밀어내거나 멀리하거나 물리치려 하는 마음이나 태도이다. 미움은 누군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에게 맞서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를 완전히 모른 체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미움은 기대했던 만큼의 가까움이 생겨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남처럼 멀리할 수는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반면 **싫음**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싫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거나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이 즐겁거나 반기게 되기는커녕 그것이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술로 말미암아 겪었던 어떤 나쁜 일이 떠오르거나 하는 사람일 것이다. 싫음은 그만두고 싶고 꺼려지는 것을 말한다. 싫음은 마음이 내키지 않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4 채만식, 『탁류(상)』, 범우사, 2002년, 332 쪽.

어떤 일에 싫증을 느끼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려 한다. 싫음은 어떤 것의 생생함이나 유의미성 또는 보람이 줄어들거나 사라져 버린 상태를 나타낸다.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혼에 따른 삶의 변화를 떠맡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다) 악(惡)의 낱말에 뒤섞인 여러 뜻: 싫어함, 죄(罪)를 지음, 나쁨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는 '악'을 설명하는 곳에서 '악'의 여러 뜻을 뒤섞어 쓰고 있다. 그는 선악이 사람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습관은 사람의 기질(氣質)에서, 기질은 다시금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기(氣)에는 청탁(淸濁)의 다름이 있고, 질(質)에는 강유(剛柔)의 다름이 있으며, 사람의 습관(習慣)에는 선악(善惡)의 다름이 있다. 청탁은 기의 굴신(屈伸)에서 생겨나고, 강유는 기의 후박(厚薄)에서 생겨나고, **선악은 기의 순역(順逆)에서 생겨난다**.[5] '악'은 사람이 기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 역리(逆理)는 기의 흐름에 거꾸로 된 나뭇결처럼 거스르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거스름은 곧 본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최한기는 **화(禍)**가 비록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모두 입을 수 있긴 하지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위악자, 爲惡者)은 그 화를 반드시 입을 뿐 아니라, 그가 만일 그 화를 억지로 피하려 하면, 그는 스스로 더 큰 화를 빚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화에는 크거나 작거나 멀거나 가까운 것이 있는데(禍有大小遠近之別), 악한 사람은 어그러진 말이나 지나친 행실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差言過行 推委於人), 험한 길과 굽은 길(險蹊曲逕)의 책임 또한 남에게 미룬다(排擯諸人).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정, 情)이 있다(人有善善惡惡之情).[6] 누군가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려 눈앞의 화를 피하려 한다면,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언젠가는 더 큰 화(禍)나 해(害)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최한기가 말하는 **악(惡)**은 기(氣)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자 큰 화(禍)를 피할 줄 모르는 것을 뜻한다. 악은 사람이 스스로의 본성에 어긋나는 버릇을 들이거나 그것을 고치지 못해 끝내 큰 화를 당하는 일을 말한다. 이때의 악은 '몹쓸 짓', 즉 남에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해(害)를 끼치는 짓을 뜻하지 않는다. 최한기가 말하는 악은 **사람이 저절로 싫어하는 어떤 것**과 같고, 그 싫어하는 까닭은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生氣)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선(善)**은 생기에 보탬이 되는 것이 된다. 그는 선과 악을 **좋아함과 싫어함**의 뜻으로 설명한다.

---

5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 윤사순(尹絲淳) 해제, 『기측체의(氣測體義)』, 「추측록(推測錄)」(제3권), 추정측성(推情測性), "성(性)은 습관에 따라 변천한다" 살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www.itkc.or.kr/itkc/Index.jsp).

6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 윤사순(尹絲淳) 옮김, 『기측체의(氣測體義)』, 「추측록」(제5권), 추기측인(推己測人) "화(禍)를 피한다" 살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www.itkc.or.kr/itkc/Index.jsp).

냄새를 잘 분별하는 자는 전에 맡았던 냄새를 증험함으로써 뒤에 맡은 냄새의 좋고 나쁨을 정하여, 저 냄새를 견주어서 이 냄새의 맑고 흐림을 분별한다. 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냄새를 능히 맡고 이미 없어진 냄새의 남은 냄새를 맡으며, 그 선악 이해(善惡利害)를 마치 음식을 삼키고 토하듯, 그 청탁 장단(淸濁長短)을 음률을 분별하듯 가려낸다.[7]

코는 우리가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좋은 냄새와 싫은 냄새를 절로 그리고 줄곧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거짓이 없다. 사람이 고약한 냄새(악취, 惡臭)를 피하듯 **화를 피할 때** 그는 선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악하다. 이때의 악 개념은 **싫어하는 것**을 뜻한다. 악취(고약한 냄새)와 악은 사람이 진실로 싫어하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악을 싫어하는 까닭은 그것이 화나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 개념은 일종의 **흠(欠)**과 같다. 악이 싫음의 대상, 즉 '싫을-거리'일 때, 그것은 아직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화나 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다. 싫은 것 또는 싫어하는 것은 아직 악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 개념은 싫음이나 싫어함에 속해야 한다.

반면 **주자(周子)**가 말한 "**성무위 기선악(誠無爲 幾善惡)**"[8]에서의 '악'은 **죄(罪)**의 개념에 가깝다. 주자의 이 말은, 성(誠)은 하고자 하는 바 없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 또는 진실무망(眞實無妄), 달리 말해, 억지로 힘쓰지 않고도 저절로 도리(道理)를 행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선악이 갈려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누군가 그 성을 끝까지 지켜 행한다면, 그의 행위는 선한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그가 **성을 어겨 제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9] 만일 사람의 본성이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아님에도 그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없다면,[10]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솜씨 좋은 꾸밈(교, 巧)'과 같고, '끝까지 지키는 것'은 '꾸밈없는 수수함(졸, 拙)'과 같다. 이때 **꾸미는 왜곡(歪曲)**은 악한 것이고, 수수한 정직(正直)은 선한 것이다.

선(善)은 사람이 스스로의 본디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악(惡)**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을 마치 보이거나 들리는 것인 양 **꾸미는 것**이자 거기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나거나**

---

7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 윤사순(尹絲淳) 옮김, 『기측체의(氣測體義)』, 「신기통」(제2권), 비통(鼻通) "냄새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다" 살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www.itkc.or.kr/itkc/Index.jsp).

8 주돈이(周敦頤), 『역통(易通)』, 「성기덕(誠幾德)」 장, 제3 살핌.

9 최립(崔岦 1539~1612) 지음, 심경호(沈慶昊) 옮김, 『간이집(簡易集)』(제9권), 「희년록(稀年錄)」, 용졸재기(用拙齋記) 살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www.itkc.or.kr/itkc/Index.jsp).

10 『중용장구(中庸章句)』 1장(章):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않아도 조심하는 것이요, 들리지 않아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은미한 것보다 더 확연히 드러날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거스름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명령이나 법을 어기는 **범죄(犯罪)**와 같고, 또 사람이 자신의 본디 마음을 최선을 다해 지키지 못한 **마음의 죄(罪)**를 지은 것과 같다. 악의 문제는 전적으로 사람이 스스로의 본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악이 사람의 본디 마음에 생기는 흠이나 결점과 같거나, 아니면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령과 같은 것을 어기거나 스스로의 본디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서 뜻매김한 바에 따르자면 '**나쁜 마음**'과 통하게 된다. 나쁜 마음은 본디 마음에 흠이 생겼거나 거기에 불필요한 어떤 것이 꾸밈으로 덧붙여짐으로써 결국 '보다 나음'의 상태에 미치지 못한 마음을 말한다.
악(惡)의 개념은 먼저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뜻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끝까지 간직해야 할 본성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는 것을 뜻하며, 결국 그것은 다시금 **나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 까닭이 그것이 사람의 본디 마음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싫어함으로서의 악은 어긋남으로서의 악에 근거하고, 이러한 어긋남은 다시금 사람이 자신의 본디 마음을 보다 나은 상태에 이르도록 하지 않았다는 데, 달리 말해,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데 근거한다. 그런데 악이라는 낱말 자체의 뜻은 무엇인가? 악의 '생각-모두-잡이(개념)'를 새롭게 뜻매김하려는 우리의 탐구에서 이 물음은 피할 수 없다.

라) 악(惡)과 관련한 낱말들

"惡"이란 한자 낱말은 그것이 선(善)과 짝하여 쓰일 때는 '악'이라 읽히고, 그것이 호(好)와 곁을 이루면 '오'라 읽힌다. '**악**'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나 무엇인가를 빼앗는 짓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하고, '**오**'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뜻한다. 미운 것이나 싫은 것은 또한 나쁜 것과 통할 때가 많다. "惡"은 "아(亞)"와 "심(心)"의 합자이다. "**아(亞)**"는 고대(古代) 중국(中國)의 집의 토대나 무덤을 위에서 본 모양을 뜻한다고도 하고 곱사등이 두 사람이 등을 맞댄 모습을 본 딴 것이라고도 한다. 무덤이든 곱사등이는 달갑지 않은 것을 뜻했고, 이는 미워하다, 좋아하지 않다, 나쁘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惡**"은 해(害)를 끼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나쁜 것, 꺼리는 것, 불길한 것, 질병이나 재난, 못 생긴 것까지 두루 뜻할 수 있다. 우리는 '惡'이 쓰인 낱말들 가운데 매우 일반적인 낱말에 한해 그 뜻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악(惡)'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낱말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최악(最惡)**"이라는 말은 '가장 나쁨'을 뜻한다. 시리아에서 요즘 유혈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의 '악'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형세나 상황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우보다 나쁜 결과가 빚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민 혁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좋은 경우는 죽거나 다치는 사람 없이 새로운 지도자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될 테지만, 가장 나쁜 경우는 시민들이 무참히 죽거나 다치는 가운데 정권 교체 자체도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악'은, 그것이 비록 앗김과 저지레의 측면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혁명의 진행과 관련하여 그것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흉악(凶惡)**"은 사람이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아무리 못된 짓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크게 이지러진 상태**를 말한다. '흉악'은 '나쁨의 상태'를 나타낸다. 흉악한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못됐거나 생긴 모습이 무섭고, 흉악한 일은 강간이나 살인강도처럼 그 벌어진 정도가 매우 끔찍한 상태이다. "**흉(凶)**"은 누군가 파놓은 함정(陷穽)의 갈라진 틈새를 나타낸다. 이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끝과 마찬가지로 공포심을 자아낸다. '흉악함'은 누군가 혼비백산으로 달아나려 할 만큼 '**무서움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것**'을 말한다. 흉악한 사람은, 그가 비록 모습이나 말투나 분위기상으로는 무서움을 자아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 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아직 '악한 사람'은 아니다.

"**악법(惡法)**"은 '나쁜 법'을 뜻한다. 그것이 나쁜 까닭은 법이 갖춰야 할 본디 모습에 다다르기커녕 거꾸로 그것의 **본질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법은 자유낙하의 물리 법칙이 떨어지는 모든 물체에게 적용되듯 그것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이에게 한결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써 모든 이가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만일 **연좌제(緣坐制)**와 같은 법이 악법이 되려면, 법의 본디 모습은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 자신에게만 물어져야 하는 것임이 앞서 받아들여져 있어야 한다. 어떤 법이 악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은 '한결같은 적용'의 원칙이나 '책임은 오직 행위 주체에게만 물어져야 한다.'와 같은 전제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나아가 그러한 전제들을 어기고 있어야 한다. 이때 그 법은 '나쁜 법' 또는 '옳지 못한 법'이 된다. 미루(만일) 그것이 실제 재판에 쓰이고, 그 나쁨으로 말미암아 몹쓸 판결이 내려지면, 그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나쁜 법'이 아니라 '악한 법'이 된다. 우리는 '악한 법'을 '몹쓸 법'이라 부를 수 있다.

"**악마(惡魔)**"는 '악한 마귀'나 '악한 귀신'을 뜻한다. 악마는 사람에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실체(實體)**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꾀는 **실체**를 말한다. 악마는 악한 짓을 저지를 힘이나 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악마는, 그것이 비록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내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을 말한다. 악마는 '악한 짓'을 그 자신이 해야 할 일로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짓을 함으로써 쾌감과 보람마저 느낀다. 악마는 **선(善)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이다. 악마는 이러한 파괴를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할 수도 있고, 갖은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악마의 실재를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악마의 소행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악마를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의 '악'은 악마에게서 충동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죄악(罪惡)**"은, 우리가 이 낱말을 '죄'와 '악'을 한꺼번에 부르기 위한 것으로 쓰지 않는 한, '악' 가운데 '**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악**'을 말한다. 이때 죄는 역사 가운데 놓인 실정법을 어기는 짓일 수도 있고, 신(神)에 의해 명령되는 계율과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짓일 수도 있으며, 특정한 가치관이나 생각 틀에서 옳다고 믿어지는 것에서 어긋나는 짓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죄악은 누군가 자신이 스스로 정한 규범이나 원칙에 의해 선언될 수도 있다. 인류가 환경파괴를 일삼는 일이 지구에 더불어 사는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 죄악을 짓는 것이라면, 이때 인류의 죄악은 생태학적 규범이나 원리에 의해서 가능케 된다.

"**악인(惡人)**"은 '나쁜 사람'이나 '싫은 사람' 또는 '미운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을 뜻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일컫는다. 악인은 사람의 본디 모습을 덜 갖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이 악하다면, 사람이 본디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는 없는 한, 그는 본성상 악할 수는 없다. 악인이 비록 악독한 짓만을 골라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또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악인의 마음에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마음들이 들어있다. 악인에게도 그 자신이 믿고 따르려는 바른 마음, 곧 양심이 있는 법이지만, 이 바른 마음 자체가 바르다고 여겨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는 그가 저지른 짓으로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으로도 악하다.

"**악성(惡性)**"은 어떤 것이 그 자체 안에 마치 **악한 결과를 낳는 원인** 물질을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악성종양(惡性腫瘍)**은 그것이 생겨난 몸체를 죽음에로 몰아가는 종양을 뜻한다. 몸 자체가 그 종양을 이길 방어력이나 면역력을 갖추었을 때, 그 종양은 악성이 될 수 없지만, 이와 달리 몸의 방어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는 양성(陽性) 종양마저도 자칫 악성으로 바뀔 수 있다. 악성은 몸속에 생긴 종양과 같은 작은 부분이 온몸에 퍼지거나 증식하여 몸 자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성질을 말한다. 아버지의 실업은, 그것이 가족을 죽음에로 몰고 가는 한, '악성 실업'이 된다.

"**악용(惡用)**"은 '잘못 쓰임' 또는 '악한 결과를 낳는 데 쓰임'을 모두 뜻할 수 있다. 악용은 어떤 것의 쓰임이 되레 그것 자체의 **본디 쓰일 목적을 그르치게 만드는 쓰임**을 말한다. 악용은 누군가 이러한 본디 쓰임새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때 일어난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선거법**이 오히려 불공정 선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때, 우리는 선거법이 이러한 정당화에 악용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악용자는 그가 실제로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정당성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것의 악용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다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망의 허점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과 권력 부여의 본디 목적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이다. 이때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위의 낱말들은 분명 매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우리는 '악(惡)'이라는 말을 이러한 낱말들에서 드러난 뜻들보다 더 넓게 쓰고 있다. **악동(惡童)**은 장난이 심한 아이를 뜻하고, **필요악(必要惡)**은 없는 것이 좋긴 좋지만 더 나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뜻하며, **발악(發惡)**은 누군가 온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것을 뜻한다. '악'이라는 낱말의 뜻은 그 낱말의 쓰임이 더 넓어짐에 따라 덩굴처럼 갈랜다. 악의 뜻 가지가 덤불지듯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문제를 문제로서 던지는 것조차 힘이 든다. 악의 뜻이 너무 많고, 그 뜻들이 서로 뒤섞여 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라는 말을 쓰는 가운데 끊임없이 **뜻의 비탈**로 미끄러지기 일쑤다. 이제 우리는 악의 뜻을 보다 날카롭게 드러내고, 그 뜻에 맞춰 '악'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말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길은 옛 소설에 의해 이끌릴 것이다.

2. 권선징악의 악 개념

악(惡)이란 낱말은 미움, 싫음, 나쁨, 못됨, 몹쓸 일과 같은 여러 가지를 뜻한다. 우리가 찾아 밝히고자 하는 '악'은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를 갖추고, '**본디 모습의 앗김**'을 낳으며, '**저지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악'을 찾아 거기에 딱 들어맞는 '뜻'을 갈무리해 볼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악의 낱말이나 악에 관한 철학적 성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왔다. 우리가 "철학(哲學)"을 '슬기 맑힘'으로 되새길 수 있다면, 악에 관한 철학적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 자신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이 책이 비록 '악의 뜻'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악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 두 가지 눈겨눔(목적, 目的)을 이루기 위해 악의 현상을 소설의 도움으로 드러낸 뒤 '악'이라는 낱말의 뜻을 새롭게 갈래짓고자 한다.

가) 서포 김만중의『사 씨남정기(謝氏南征記)』

우리의 무의식(無意識/밑에 깔린 생각 결)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에 대한 믿음은 널리 퍼져 있다. 서포 김만중[11]의『사 씨남정기(謝氏南征記)』(1689년-1692년 사이에 씀) 마지막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앙화(殃禍)를 받는 법이로다**."라는 권선징악에 대한 경계(警戒)의 말이 실려 있다. **오늘날** 우리네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화를 당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또 스스로 착한 사람으로 살고자 고집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 보인다.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기 위한 '**앞-다툼**(경쟁, 競爭)'이 나날이 거세찬 가운데 착하기만 한 사람은 그 뒷배가 든든하지 않은 한 발붙일 곳이 거의 없다. 게다가 몹쓸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겨눔(목적, 目的)을 맞추기 위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법을 교묘(巧妙)히 악용할 줄 알거나 권력의 비호(庇護)를 받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모짝 무너져 버릴 뿐이다.
사람은 몹쓸 놈(악인, 惡人)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힘과 물리칠 슬기**(지혜, 智慧)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맞섬과 물리침은 가끔 악한 짓과 다름없는 짓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몹쓸 짓은 피하거나 맞설 줄 알고, 착한 짓은 높크게 돋울 줄 안다. 권선징악은 무조건적인 착함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악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착하미**(착한 삶을 살려는 사람)는 악인(惡人)의 꾀를 쫓아 자

---

11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은 1637년(인조 15)~1692년(숙종 18) 동안 살았던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소설가였다. 그는 아버지 없이 엄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지만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그는 주희(朱熹)의 논리를 비판하는가 하면 불교 사상을 거침없이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시문(時文)은 반드시 제 나라말로 지어야 함**을 강조했고, 한문은 딴 나라 말(타국지언, 他國之言)로 보았다. 김만중은 훈민정음으로 쓰인 첫 번째 소설인 허균(許筠, 1569년(선조 2)~1618(광해군 10): 역적모의의 죄로 '토막 내 죽임'의 형벌을 당함)의『홍길동전』(1610년 즈음에 쓰임)을 뒤이어 소설『구운몽(九雲夢)』(1687)과『사 씨남정기』를 훈민정음으로 지었다.

기만 잘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슬기를 길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을 키우고자 한다. 이와 반대로 **몹쓸이**(악인, 惡人)는 꾀로써 일을 이루는 데는 뛰어나지만 나누고 베풂으로써 더불어 사는 데는 꽉 막혀 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밑바닥-믿음'은 사회생활에서는 바닥이 비워진 지 오래다. 우리는 남이 착한 것은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착한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가 비록 자신의 아들딸이 착하게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이 평탄할 것임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사회 전체**가 올바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만일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숱한 방해와 간계와 위협 앞에 놓인다면, 그는 그 착함 때문에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금방 파멸을 당할 것이다. 그가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그에게는 이러한 바람막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하늘이나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또는 좋고 올바른 제도의 보호를 받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몹쓸 짓에 대한 처벌은 도덕과 법이 올바로 떠맡는다. 악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회는 착한 사람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 즉 모두가 모두에 대해 제몫만을 앞다퉈 챙길 뿐 두루 나눌 줄은 모르는 세상이 된다.

우리는 먼저 『**사 씨남정기**』에서 저질러진 **악한 짓들**을 뒤따라 살펴볼 것이다. 이 소설에서 **착한 사람**은 사 씨로 대표되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몹쓸 사람**의 대표는 교 씨이다. 이 둘은 유한림의 처와 첩이다. 첩(妾) 교채란(교 씨)은 "얼굴이 아름답고 거동이 경첩해 해당화 한 송이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나부끼[는 것과 같은]"[12] 모습을 갖추고 있다. 교 씨가 첩이 된 까닭은 사 씨가 교 씨를 첩으로 들이고자 간청(懇請)했기 때문이다. 사 씨의 간청이 비록 사 씨 자신이 지은 죄, 즉 가문의 대를 이를 아들을 낳지 못한 죄를 덜기 위한 것이었을지라도,[13] 그것은 결국 **집안의 큰 화(禍)**를 불러들이는 뿌리(화근, 禍根)가 되고 만다.

만일 사 씨가 교 씨를 첩으로 들이지만 않았다면 교 씨 또한 죄를 지을 까닭이 없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부인 또는 첩으로 거느리는 일은 **집안싸움의 근본(根本)**이 되고, 그러한 싸움이 곧 몹쓸 짓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한림과 그의 고모 두부인은 첩을 얻는 것이 집안에 몹쓸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들어 반대한다.

"[한림이 웃어 가로되] 어찌 일시 아들 없음을 한탄하여 첩을 얻으리요. 첩을 얻음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니, 부인은 어찌 **화를 자초**하려 하시느뇨. 이는 **천부당만부당**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14](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

12 서포 김만중 지음, 한국고전연구회 편, 『사 씨남정기』, 시간과공간사, 1992, 28 쪽. 앞으로는 "서포 김만중, 00쪽"으로 적음.

13 서포 김만중, 26 쪽: "첩[여기서는 사 씨를 말함]이 기질이 허약하여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고 불효삼천(不孝三千)에 무후위대라 하오니, 첩의 **무자한 죄**는 존문에 용납치 못 할 것이오나 상공의 넓으신 덕택을 입사와 지금까지 부지하옵거니 생각컨대 상공이 누대 독신으로 유씨 종사의 위태함이 급하온지라 원컨대 상공은 첩을 괘념치 마시고 어진 여자를 택하여 득남득녀하시면 가문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첩이 또한 **죄를 면할까** 하옵니다."(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14 서포 김만중, 26 쪽.

"[두부인이 가로되]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화를 불러오는 근본**이라, 속담에 이르기를 한 말에 두 안장이 없고 한 밥그릇에 두 술이 없다 하니 군자가 비록 얻으려 하더라도 굳이 그 불가함을 간할 것이거늘, 이제 **화를 자초함**은 어찌함이뇨?"[15](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두부인이 만류하지 못 할 줄 짐작하고 탄식하여 가로되] 장차 들어올 신인이 양순한 여자거나 또는 군자가 간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만이거니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나이 마음이 한 번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우리니**, 그대는 앞으로 내 말을 생각하고 뉘우침이 없게 하라."[16](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어질고 착한 사 씨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첩을 들이는 일을 선택했다. 이 일은 집안에 큰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사 씨가 남편과 시고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던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몹쓸 고통을 당해야 했다. 처와 첩의 사이는 불화와 반목이 극심할 수 있고, 그것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첩(妾)**은 아들을 낳거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만 그 몸값이 인정되는 반면, 처는 그 자체로 귀하고 높은 대접을 받는다. 게다가 첩의 아들은, 만일 처가 아들을 생산하는 순간 "쓸데없는 군것"[17]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첩은 자신이 그 집안에 있어야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반면, **처(妻)**는 너무도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다. 첩과 처 사이에는 얼마든지 인정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사 씨가 이러한 **신분적 불평등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교 씨의 사람 됨됨이를 정확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첩을 들인 것이 모든 몹쓸 일이 일어나는 태반(胎盤)이 된다.
교 씨는 그 마음씀이 안과 밖이 다를 뿐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꾸며내고, 앙심을 잘 품으며 강샘(질투, 嫉妬) 또한 심하다. 교 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진 마음씨(성품, 性品)까지 지녔다. 교 씨의 몹쓸 짓이 줄줄이 꿰일 **첫 코**는 그녀가 자신을 모시는 계집종 납매가 추천한 십랑(十娘)이라는 여자의 말을 따라 자신의 배속에 든 딸을 아들로 변하게 하는 술법을 사용하고, 한림을 유혹하여 농락하기 위해 가랑(佳娘)이라는 하방 계집을 곁방에 두고 술을 마시며 거문고와 노래를 배운 것이다. 딸을 아들로 바꾸는 변태술을 쓰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지은 것이고, 한림을 유혹하려 하는 것은 교 씨를 소외시키고 집안을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몹쓸 짓이다.
하늘의 뜻을 어긴 죄는, **교 씨**가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려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바람에, 결국 하늘이 예정해 둔 것, 즉 '아들을 낳으면 장수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실현을 통해 처벌을 받고 만다. 그녀의 **아들 장주**는 그녀와 사통하던 **동청(董淸)**이 사 씨를 죽

15 서포 김만중, 26 쪽.

16 서포 김만중, 27 쪽.

17 서포 김만중, 34 쪽.

이기 위해 생각해 낸 측천무후(則天武后)의 꾀[18]에 희생을 당해 죽고 만다. 교 씨는 그것이 동청의 몹쓸 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길로 치닫는다. 교 씨는 한림에게 집안 비복들을 문초하여 죄인을 찾아내도록 요구하고, **한림**은 형장을 차려 진상을 밝혀 나간다. 하지만 한림은 계집종 설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장주를 직접 눌러 죽인 **납매**가 이미 계집종 **설매**를 꾀어 사 씨가 장주의 죽임을 사주했고, 실제로 장주를 죽인 이는 춘방이라는 계집종이라는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이 재판은 무죄한 **춘방**을 고문으로 죽이고, 무죄한 **사 씨**를 칠거지악의 죄목으로 집에서 떠나도록 만든 뒤 교 씨를 정실부인으로 앉히는 노릇을 하고 만다.

반면 **사 씨**는 착한 마음씨 때문에 교 씨의 옳지 못한 행실을 보고도 좋은 말로 타이를 뿐[19] 교 씨를 감시하거나 단속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남편이 동청을 문객으로 들이는 것을 알고 그를 반대하지만,[20] 남편이 사 씨를 강샘하는 여인으로 의심하는 바람에 남편의 뜻을 돌리지 못한다. 모질지 못한 사 씨의 마음과 사 씨가 교 씨를 투기한다고 생각하는 유한림의 의심이 곧 **화(禍)를 키우는 꼴**이 되고 만다. 이로써 첩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교 씨와 떠돌이 문객 동청이 만나게 된다. 그 둘의 만남은 **악당(惡黨)**이 꾸려지는 것과 같아서 만나자마자 곧 서로 간통을 즐기고, 사 씨를 몰아낼 공모를 함께 꾸미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없게 모함하며, 남의 재산을 모지락스럽게 빼앗는 일들을 저지르고 다닌다. 유한림은 자신의 첩 교 씨가 지은 죄가 다음의 열 가지임을 밝히고 있다.

---

18 서포 김만중, 48 쪽: "[동청이 가로되] 이 책은 당나라 『사기』라, 거기 쓰인 글을 볼 것 같으면 예전에 **당고종**이 **무소의(武昭儀)**를 총애하고 무소의가 왕후를 참소코자 하나 적당한 시기를 얻지 못하더니, 무소의가 마침 딸을 낳으매 얼굴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고종이 몹시 사랑하고 황후도 역시 귀히 여겨서 때때로 와서 보더니, 하루는 황후가 전과 같이 무릎 위에 놓고 어르다가 나간 뒤에 소의 즉시 그 딸을 눌러 죽이고 소리를 질러 통곡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 딸을 죽였느냐' 하니 고종이 궁인을 모조리 국문하매, 이구동성으로 외인은 아무도 침전에 출입한 자가 없고 다만 황후께서 막 오셨다가 갔다 하여 황후가 마침내 변명함을 얻지 못한지라 고종이 드디어 왕황후를 폐하고 무소의로 황후를 봉했으니, 이가 천고유명한 **측천무후(則天武后)**라."(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19 서포 김만중, 32 쪽: "**여자의 행실**은 출가하면 시부모 봉양과 낭군 섬기는 여가에 자녀를 엄숙히 가르치고 비복을 은혜로 부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데 노래로 음률을 행하고 소일하면 **가도가 자연 어지러워지니** 그대는 깊이 생각하여 두 번 다시 그런 데 나가지 말고 여자를 집으로 보내되 나의 말을 허물하지 말라."(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20 서포 김만중, 36 쪽: "[사부인이 한림께 간하여 가로되] 첩이 들으니 **동청의 위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가히 용납치 못할지라, 그전 있던 곳에서도 요악한 일을 무수히 행하다가 일이 탄로되매 도망하여 떠다니다가 이에 왔으니 상공은 모래 머물러 두시지 말고 **곧 내보내십시오**."(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상공이 비록 그 사람과 친구는 아니나 **부정한 무리**와 더불어 같이 있으면 자연 사람을 그릇 만드나니, 이런 부정한 사람을 가내에 두어 만일 **가도를 요란케** 한다면 지하에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가법을 더럽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네 죄가 한 둘이 아니니, 음부(淫婦)는 들어보아라. 처음에 [사 씨] 부인이 너를 경계하여 음란한 풍류를 말라 함이 또한 좋은 뜻이거늘, 네 도리어 참소하여 나[유한림]를 미혹케 하니 **죄 하나**요, 십랑으로 더불어 요괴한 방법으로 장부를 속였으니 **죄 둘**이요, 음흉한 종으로 더불어 당을 지었으니 **죄 셋**이요, 스스로 방자하고 부인께 미루니 **죄 넷**이요, 동청과 사통하여 문호를 더럽히니 **죄 다섯**이요, 옥가락지를 훔쳐내 냉진을 주어 부인을 모해하니 **죄 여섯**이요, 네 손으로 자식을 죽이고 대악을 부인께 미루니 **죄 일곱**이요, 간부와 동모하여 가부를 사지로 귀양 보내니 **죄 여덟**이요, 인아를 물에 넣어 죽게 하니 **죄 아홉**이요, 겨우 부지하여 살아오는 나를 죽이려 하니 **죄 열**이라. 음부는 천지간에 큰 죄를 짓고 오히려 살고자 하느뇨?"[21](강조는 글쓰미가 했음)

유한림이 초든 **교 씨의 첫 번째 죄**는 사 씨 부인이 교 씨에게 음란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계한 말을 거짓으로 꾸며 사 씨를 헐뜯고, 더 나아가 유한림 자신을 그릇된 쪽으로 홀렸다(미혹, 迷惑)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한림이 슬기롭기만 했다면**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몹쓸 짓거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뜻한다. 유한림과 사 씨는 그들이 비록 그 당시의 착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몹쓸이(악인)들을 알아볼 줄 몰랐고, 그들을 물리칠 슬기를 미리 갖추고 있지 못했다. 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몹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볼 줄 알고 몹쓸 짓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살필 줄 알아서 결코 **몹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곧 **권선징악의 본디 내용**이다. 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몹쓸이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물리쳐 싸울 줄 아는 슬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착하미들은, 하늘의 도움이 없는 한, 몹쓸이들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사 씨는 정실부인의 자리를 꿰차려는 교 씨의 몹쓸 마음씨를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좋은 말로써 교 씨의 몸맘가짐(행실, 行實)을 꾸짖을 뿐이다. 그 **꾸짖는 말**의 핵심은 교 씨로 하여금 첩이 된 여자의 할 일은 다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시부모 봉양, 남편 섬김, 아랫사람들을 은혜로 부림 등은 여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속하고, 노래 부르며 노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속한다. 사 씨의 가르침은 당시의 좋은 가문의 여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바였다. 하지만 이러한 꾸짖음은 몹쓸 마음씨를 품은 교 씨에게 통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되레 사 씨 자신을 음해(陰害)할 **빌미**가 되고 말 뿐이었다. 교 씨는 사 씨의 말을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꾸며댔다.

"첩이 아까 **심심하기**로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이 듣고 불러 **책하시되**, 요괴한 노래로 집안을 요란케 하고 상공을 미혹케 하니, 네 만일 이후에 또 노래를 부르면 내게 **혀를 끊는 칼**도 있고 **벙어리 만드는 약**도 있나니, 삼가 조심하여라 하시니 첩이 본래 빈한한 집 자식으로 **상공의 은혜**를 입사와 부귀영화가 이같사온데, 비록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22]

교 씨의 거짓말은 먼저 자신의 행실이 누군가에게 꾸짖음을 살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내보이

---

21 서포 김만중, 95-96 쪽.

22 서포 김만중, 33 쪽.

고, 그로써 사 씨 부인의 나무람 말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책망임을 넌지시 드러내며, 혀를 끊는 칼이라든지 벙어리 만드는 약이라는 험한 말을 지어냄으로써 사 씨의 사람됨이 잔인함을 폭로하고, 남편의 은혜를 기리는 아첨을 떠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 씨는 자신이 노래를 부른 사실은 알리고 있지만, 그 자신의 옳지 못한 의도는 숨긴 반면, 사 씨가 한 말은 숨기고 그 의도는 제 꾀로 바꾸어 꾸몄다. 결국 남편 유한림은 첩(妾) 교 씨의 갖은 거짓말과 거짓 짓거리에 속아 사 씨의 강샘(투기, 妬忌)을 **의심(疑心)**하게 된다. 유한림이 속아 넘어감으로써 교 씨는 오만방자(傲慢放恣)하게도 제 뜻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 맘대로 없애고자 한다. 이러한 일은 그녀가 계집종과 동청 그리고 냉천 등과 **한 무리가 됨**으로써 실현된다.

반면 사 씨와 같은 착한 사람은 처음에는 악당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위의 유한림이 밝힌 교 씨의 죄목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교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 씨가 아이를 배자 자신의 계집종 납매와 함께 짜고 **아이를 떨어뜨릴 약**을 사부인 먹는 약에 타서 먹인 일이다. 미루(만일) 사 씨가 그 약을 먹고 아이가 떨어졌다면, 그녀는 아들 못 낳은 죄로 말미암아 교 씨의 무시와 박해 그리고 음해로써 집안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른다. 사 씨를 닥쳐 올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 씨는 **천지신명(天地神明)의 도우심**으로 구역질로 그 약을 토해낼 뿐이다. 그 바람에 사 씨는 아들 인아(隣兒)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다. 사 씨가 비록 집안에서의 모든 권위를 단숨에 되찾게 되긴 했지만, 숨겨진 채 벌어졌던 교 씨의 몹쓸 짓거리는 끝까지 묻히고 만다.

교 씨는 자신의 꾀가 물거품이 되자 부아가 치밀어 **그 마음씨가 더욱 못되게** 된다. 교 씨의 몹쓸 마음은 그 주변에 계집종 납매, 그 계집종의 동생 설매, 그녀의 정부(情夫) 동청과 그가 소개한 소년 냉진(冷振) 등이 한 통속으로 모임으로써 **몹쓸 짓으로 내뻗는다**. 유한림이 **몹쓸 무리를 짓는 것**을 죄로 본 것은 당연하다. 몹쓸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것 자체는 아직 '악'이 아니지만, 그들이 무리를 짓는 순간 그들은 '몹쓸 짓들'을 저지르기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에 쉽사리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유한림 또한 교 씨 무리의 꾀에 넘어가 장주가 병에 걸린 것이 사 씨의 주문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냉진이라는 사내의 속옷고름에 매인 유씨 집안의 세전지물 옥가락지를 보고 사 씨의 정절을 의심하며, 교 씨의 아들 장주의 죽음을 사 씨 부인이 사주한 것으로 여겨 사 씨를 집안에서 내쫓는다.

미루(만일) 쫓겨난 사 씨의 **꿈속**에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나타나 갈 곳과 앞날에 벌어질 일들을 일러 주지 않았다면, 사 씨는 교 씨의 자객들을 피할 수 없었을 테고, 또 만일(미루) 순임금의 두 왕비가 **꿈속**에서 살길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사 씨는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을 것이며, 미루 묘혜의 **꿈**에 관음이 나타나 사 씨를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사 씨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것이다. 사 씨는 목숨을 건져 불가(佛家)의 한 암자에 거처를 마련하게 된다. 반면 유한림은 교 씨와의 간통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한 동청이 한림의 글을 훔쳐내어 엄승상에게 반역의 죄로 밀고한 게 빌미가 되어 행주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물과 흙이 나빠 생기는 죽을병에 걸리지만 **꿈속**에 나타난 한 노인이 알려준 샘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행운(幸運)**이 없었다면 사 씨와 유한림은 악인의 밥(제물, 祭物)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행운아가 결코 많을 수 없는 한

이러한 행운을 대신하여 악을 막을 제도적 장치들과 악에 당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

몹쓸이들은 그 몹쓸 짓들을 통해 **큰 이득을 얻는다**. 동청은 엄승상에게 아첨하여 진류라는 곳의 현령이 되고, 교 씨를 아내로 맞아 백성에게 세금을 더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하여 재물을 빼앗아 큰 부자가 된다. 동청은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시금 엄승상에게 금은이 많은 남방 계림의 수령을 시켜 달라 청하여 허락을 받음으로써 성공가도를 달린다. 몹쓸이들은 자신들이 거머쥔 권력과 권세로 착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는다. 유한림은 동청과 교 씨가 보낸 도둑 떼에게 쫓기다가 강가에 다다라 죽을 지경까지 몰리게 되고, 사 씨는 남편과 아들의 소식도 모른 채 암자에 칩거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몹쓸 짓들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지속되지만, 그것이 **폭로(暴露)**되는 순간 그 자신들이 했던 모든 짓이 그들 자신을 파멸로 몰아간다. 이러한 파멸의 첫 단추가 곧 **고백(告白)**이다. 아무리 그 위세가 등등하던 몹쓸 무리도 그 가운데 누군가 자신이 저지른 몹쓸 짓을 뉘우치고 '바른 마음(양심, 良心)'을 되찾아 용서를 구하면서 그 잘못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 무너질 수 있다. 뉘우치미는 몹쓸 무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한다. **몹쓸 짓에 대한 고백**은 그 동안 죄를 뒤집어썼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복권된 사람들의 피해 회복에 힘을 실어준다. 이러한 과정을 설매의 보기로써 살펴보자. 설매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말 줄일 수 있다.

"사부인을 저버리고 교낭자를 섬긴 것은 어머니를 버리고 범의 입에 들어감이니 소비 무엇을 알리까. 다만 납매의 꾐에 빠지고 돈에 팔림이오니, 만 번 죽더라도 속죄하지 못하리로소이다."[23]

설매의 고백은 유한림이 사 씨에 대한 오해(誤解)풀고,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어 사 씨와 화해(和解)할 수 있게 해 주는 **묘약(妙藥)**이 된다. 유한림이 도둑 떼에 쫓겨 강가로 내몰릴 때 여승 묘혜가 그리로 배를 몰고나가 그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극적이지만, 그 배에 올라 죽을 목숨을 간신히 건진 유한림이 거기에서 사 씨 부인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이 자신들의 운명적 만남에 슬픔과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한바탕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 그리고 아들 인아의 실종 소식에 사 씨가 기절한다는 것 등은 설매의 고백이 있었을 때에만 가능했을 것이다. 유한림은 사 씨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容恕)**를 구한 뒤 그 동안 일어난 교 씨의 죄악상을 사 씨에게 낱낱이 알려 준다. 그 둘은 다시 부부의 인연으로 돌아가고, 사 씨 부인은 한림에게 교 씨와 동청의 간계를 조심할 것을 이른다. 설매가 털어놓은 교 씨의 죄악상은 다음과 같다.

"사부인께서 비복을 은의로 거느리시되, 불충한 소비가 우둔해 납매의 꾐에 빠져 옥가락지를 훔쳐내 장주를 죽여 부인을 출거케 함이 모두 소비의 죄이오며 교낭자[교 씨]가 동청과 사통하여 십랑과 공모함이요, 상공을 행주로 귀양보내심도 교낭자가 동청과 꾀함이오, 상공이 가신 후 교낭자, 도망할 뜻을

23 서포 김만중, 79-80 쪽.

내어 형을 보러 간다 하고 동청에게로 가니, 소비 비록 천인이나 어찌 이런 변을 보았사오리까. 교낭자가 투기와 형벌이 혹독하여 시비를 악형으로 위협하니, 소비도 죽을 고초를 많이 당하였사옵니다."[24]

설매가 자신의 몹쓸 무리를 배반(背叛)하고 그 무리에게 복수를 가할 유한림에게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백한 까닭**은 '**바른 마음(양심, 良心)의 찔림**'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 씨가 정실부인이 되고, 유한림이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를 떠나자 설매는 그 모든 결과(유씨 집안의 몰락)가 **자신의 죄(罪)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는다. 설매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기만 했더라도 그러한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설매가 비록 자신의 죄를 뒤늦게 깨닫긴 했지만 이미 일어난 불행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설매는 교 씨가 자신에게 내린, 사 씨의 아들 인아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악의 무리에 **맞서**기 시작한다. 설매는 자신이 사 씨 부인을 모해(謀害)한 것을 이미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해한다면 천벌(天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매는 하늘이 두려워 인아를 차마 해치지 못하고 물가 수풀 속에 고이 뉘어 놓고 교 씨에게는 인아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거짓을 아뢴다.

우리는 설매의 결단을 통해 사람에게는 '**바른 마음**'이 어떻게든 깃들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마음은 구부러지거나 꺾이거나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곧게 펴질 수도 있다. 이 곧고 바른 마음이 줄곧 이어지고 온새미로 지켜지는 한, 사람은 몹쓸 짓을 저지를 마음을 먹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 마음을 잃게 되는가? 우리는 설매의 고백을 통해 **몹쓸 일이 일어나는 까닭**을 잘 살필 수 있다. 설매는 교 씨가 팔을 불로 지지는 혹독한 형벌을 가하고 돈을 주어 매수하는 바람에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설매는 신분적으로 너무도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상전(上典)이 자신의 팔을 불로 지져도 도와달라고 할 데가 하나도 없었던 **가장 큰 약자(弱者)**였다. 게다가 그녀는 갈 곳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었다. 설매는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처분을 상전에 맡겨야 했다. 설매는 개가 가혹한 매를 피하고 던져진 고깃덩어리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한눈을 팔듯 자신의 고달픈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바른 마음'을 **잠재웠던 것**이다.

우리는 앞서 첩인 교 씨가 저지른 몹쓸 일이 정실부인인 사 씨의 어질고 착한 결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처와 첩 사이의 불화와 반목 가능성, 첩의 **지위의 상대적 취약성(脆弱性)**은 교 씨로 하여금 몹쓸 짓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데 뜻을 두게 만들었다. 아니 당시의 **처첩제도**는 사 씨에게마저도 일종의 족쇄가 되었다. 정실부인인 사 씨 자신이 아이(아들)를 못 낳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몹쓸 짓에 대한 원죄가 된다. 사 씨와 더불어 무리를 지은 사람들 모두가 신분이 낮거나 그 지위가 불안정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꿈꾸는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이 닫혀 있었다. '보다 나은 삶의 문'은 그들에게는 저절로 열리거나 노력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전의 은총(恩寵)과 같은 것으로써만 가능할 뿐이었다. 교 씨는 자신이 바라는 삶이 사 씨를 제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

24 서포 김만중, 79-80 쪽.

몹쓸 일은 저마다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곳과 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삶수**(삶의 가능성)는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모두-살이**(사회, 社會)'가 사람을 함부로 낮잡거나 깔보는 일이 없을 때만 주어질 수 있다. 삶이 저마다가 꿈꾸는 바대로 고루 펼쳐질 수 있다면, 누구도 남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몹쓸 일은 **삶수의 고름(평등, 平等)**이 깨졌을 때, 달리 말해,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몇몇 무리가 그것을 독차지했을 때 일어난다. 사람이 비록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을지라도, 그 다름에 인위적 층위(層位)나 장벽(障壁)이 없고, 그로 말미암은 **짓밟힘**이나 **억눌림** 또는 **깔아뭉갬**(차별, 差別)이 없는 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먹을 것이다. 삶의 길이 막혔다고 여겨질 때 그 길을 뚫고나가고자 하는 모진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데 설매는 사회적 차별이 제도적으로 상존(常存)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바른 마음**'을 되찾는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몹쓸 일을 통해 자신의 바른 마음을 처음으로 자각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된비알**(기구, 崎嶇)일지라도 자신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비로소 가름할 줄 알게 된다. 설매는 스스로 '바른 마음'을 먹음으로써 **사람다움**에 눈을 뜨고, 스스로의 **사람됨**을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단한다. 설매의 **결단(決斷)**은 고문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지르던 자신의 옛 마음을 끊고, '바른-살이(본래성)'를 살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한다. 설매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 사 씨의 아들 인아를 살려주는 용기 있는 행동을 감행한다. 미루 설매가 **바른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좀 더 일찍 가졌더라면, 그녀는 그녀가 비록 신분적 강제를 받았을지라도 결코 갓난아이를 죽이는 몹쓸 일 따위는 결코 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설매의 바른 마음이 곧 몹쓸 일을 막는 언덕(방파제, 防波堤)이 되고, 그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칼(용기, 勇氣)이 된다.

하지만 설매는 자신이 속한 몹쓸 무리가 지은 몹쓸 짓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눈물겨운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교 씨가 고백의 사실을 알자, 설매는 모진 형벌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목을 매어 죽는 길을 택한다. 몹쓸 무리는 배신자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를 일삼는다. 몹쓸 무리가 배신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는 까닭은 배신이 곧 조직 전체를 한 순간에 허물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악에 대한 숨김없는 고백(告白)**은 악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과 같다. 악의 지진(地震)으로서의 고백은 악한 무리 전체에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가한다. 악에 대한 고백은 악이 퍼지는 길목과 방향을 알리는 것이고, 그로써 사람들에게 악에 맞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악의 뿌리와 샘이 알려짐으로써 사람들이 그 뿌리를 자르고 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악의 고백은 저질러진 모든 몹쓸 일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반환점(返還點)이 된다.

바른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내리비탈에서조차도 몹쓸 짓에 맞설 수 있고, 일어난 몹쓸 일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은 피해를 돌이키려 한다. 돌이킴은 그 도는 방향을 거꾸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돌이킴의 목적은 본디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사람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면, **돌이킴**은 이러한 '저마다 다름'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미루(만일) 다름에 따른 가름이 짓밟히고 억눌리고 뭉개졌다면, 달리 말해, 모든 것이 획일화되거나 계급화되거나 서열화되어 있다면, 그것(저마다의 다름)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돌

아갈 곳은 사람의 삶이 몹쓸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빼앗기기 이전 상태, 달리 말해, 사람이 **저마다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자유(自由) 상태는 서로의 다름이 가능한 한 존중받는 상태, 한 마디로 말해, 모든 것의 관계가 바른 상태이다.

몹쓸 일(악)은 그것이 한번 일어나는 한 거듭 일어나곤 한다. **일어난 몹쓸 일**은 누군가에 의해 **고백**되어 드러나거나 누군가 그것에 **맞서 싸울** 때에만 그 **길목**이 막히고, 그 **뿌리**가 끊기며, 그 **샘**이 메워질 수 있다. 몹쓸 일은 사람이 그 자신이 속한 '모두-살이(사회, 社會)'에서 저마다 제 삶(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누군가 또는 특정 집단이 사회적 차별이나 강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보기컨대 시험에 떨어지거나 승진에 실패한 결과가 너무도 가혹(苛酷)할 때, 그 또는 그들은 어떠한 몹쓸 짓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러한 몹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손쉬운 방법**은 그 또는 그들이 스스로의 삶수를 '바른-마음'으로 절제(節制)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분수(分數)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만족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삶수에는 뜻을 두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때 그들은 '낮은 살이'를 참아내야 한다.

일어난 몹쓸 일이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그 힘을 잃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돌이켜진다. 이때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안타깝지만 되살릴 수 없다. 교 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장주, 춘방)뿐 아니라, 교 씨 자신과 그녀를 도왔던 몹쓸이들 또한 죽음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교 씨와 동청 그리고 냉진의 **무너짐**은 갑작스럽다. 동청은 계림이라는 곳에서 큰 벼슬을 하며 백성들과 행인의 재물을 빼앗는 일에 몰두하여 많은 재산을 쌓는다. 하지만 교 씨는 동청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봉추가 병들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냉진과 다시 몰래 사통한다. 동청은 냉진을 시켜 엄승상에게 재물을 상납하게 하지만, 냉진은 엄승상이 삭탈관직을 당하고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등문고(登聞鼓)를 쳐 계림태수 동청의 악독한 학정을 고발한다. 이로써 동청은 잡혀 장안(長安) 거리에서 목 베임을 당하고, 그 가산은 적몰(籍沒)되고 만다. 함께 살기로 한 교 씨와 냉진은 짐꾼에게 가진 재산을 모두 도둑맞는다. 그 뒤 냉진은 도둑을 사귀다 잡혀 죽임을 당하고, 교 씨는 낙양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창기가 된다.

유한림과 사 씨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렸던 아들 인아도 우여곡절 끝에 되찾는다. 유한림이 끝내 교 씨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교칠낭이라 불리는 교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인 뒤 그 죄를 묻는다. 악인 교 씨는 땅에 엎드려 슬피 울며 자신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걸하며 다음과 같이 **변명(辨明)**한다.

"이 모두 첩의 죄오나 장주를 해함은 설매의 일이요, 도둑을 보냄과 엄승상에게 참소함은 동청의 일이로소이다. (건너뜀) 첩이 실로 부인[사 씨]을 저버렸거니와 오직 부인은 대자대비하신 덕으로 천첩의 잔명을 보존케 하옵소서."[25]

---

25 서포 김만중, 96 쪽.

교 씨의 변명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참말도 아닌 **발뺌의 말**이다. 발뺌은 자신에게 닥칠 어떤 뒤탈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26] 교 씨는 자신이 지은 죄 값을 떠맡지 않기 위해 자신의 무리에 의해 저질러진 **몹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일을 직접 행한 행위자에게로 돌리려 한다. 교 씨가 내세우는 알속(핵심, 核心)은 몹쓸 짓거리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말하기 틀(논리, 論理)에 따를 때, 교 씨에게 내려진 열 가지 죄 가운데 교 씨가 스스로 자신의 죄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 씨를 저버린 일뿐이다. 나머지 죄, 보기를 들자면,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를 짓거나 죄를 뒤집어씌운 것, 또 간통하거나 모해(謀害)하거나 인아를 죽이도록 명령한 것 등에 대해 교 씨는 그녀가 그 꾀를 냈거나, 그 꾀를 함께 짜기는 했지만 그 꾀를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 씨는 사 씨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다.

유한림이 **문중(門中) 재판(裁判)**을 열어 교 씨에게 물은 죄 값은 "교 씨의 가슴을 헤치고 심통을 빼"내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유한림은 교 씨의 변론(辯論)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를 위해 변호해 줄 이를 찾지도 않았다. 유한림은 설매의 고백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들에 의존해 판결할 뿐, 판결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갖추려 하지는 않는다. 교 씨와 한림 사이에는 죄악의 개념과 그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김만중은 교 씨에게 내려질 형량이 법(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밝혀주지 않고 있다. 비록 당시의 법이 간통의 죄를 지은 여인을 살인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과연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더 나아가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지, 마지막으로 죄의 근거가 되는 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묻게 된다.

나) 권선징악(勸善懲惡) 속 '악 개념'

우리는 이제 악의 개념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다다랐다. 권선징악 속에 들어 있는 **악**에 대한 '**생각-모두-잡이**(개념, 槪念)'는 나쁨이나 미움, 싫음이나 꺼림, 못생김이나 못남 등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아무 죄 없는 갓난아이를 죽이는 일, 남의 재산 전체를 빼앗는 일,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을 뒤탈을 없애기 위해 또는 자신의 앙갚음을 위해 죽이는 일, 아랫사람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돈으로 유혹하여 몹쓸 짓을 시키는 일, 힘없는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喝取)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일**'이다. 몹쓸 일은 <u>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로써 일어나는 것</u>이고, 누군가의 <u>삶의 본디 모습을 앗아가 버리는 것</u>이며, 누군가의 <u>삶을 무너뜨리거나 부수거나 헐어버리는 저지레의 성격</u>을 갖는다.

사 씨 부인이 교 씨를 **첩으로 들인 일**은, 그 일이 후손을 잇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몹쓸 일의 첫코가 된 이상,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첩들임의 의도 자체는 본디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은 벌어진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반대로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것 자체는 아직

---

26 이러한 발뺌의 현상에 대해서는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청계, 2002), 244-246 쪽 살핌.

악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사 씨는 나쁜 의도를 간파할 수 없을 정도로 때가 묻지 않았고, 나쁜 결과를 미리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순진했다.

이 소설에서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는 몹쓸 일이 일어나는 처음과 끝에서 뒤바뀐다. 당하미로서의 사 씨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몹쓸 일**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 일을 막지 못했고, 그 일이 일어남으로써 스스로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사 씨가 당한 몹쓸 일들은 어느 정도는 그녀 자신의 '어리석은 착함'에게 **탓(책임, 責任)**이 있다. 그렇다고 그녀가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 씨는 첩들임을 통해 그 누구의 삶도 억지로 무너뜨리거나 부수고자 하기는커녕 거꾸로 모두의 삶에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바랐기 때문이다. 사 씨는 끝까지 그 누구에게도 몹쓸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심지어 사 씨는 교 씨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줄 것까지 요구한다. 사 씨는 당하미이긴 하지만 그녀를 아끼는 하늘과 조상들의 도움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다.

반면 교 씨가 처음에 자신의 불안한 신분을 안정시키려 했던 짓, 보기를 들자면, 배속 여자 아이를 남자 아이로 바꾸려 하는 짓은 그녀 자신의 바람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숨은 뜻, 즉 사 씨의 자리를 넘보려는 검은 뜻을 감지한 사람들에게 그녀가 한 짓은 비난을 받을 나쁜 짓이다. 그녀의 짓거리는 사람들이 멀리하려 하는, **미움을 살 짓**이라고 할 수 있다. 미움은 어떤 것이나 어떤 짓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아 가까이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달리 말해, 그것이나 그 짓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운 사람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때론 감정을 사지 않기 위해 그를 잘 대해 주기도 한다. 미움은 서로가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겨나는 기분이다. 이 기분은 아직 미우미를 내쫓거나 그에게 어떤 해코지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교 씨는 자신의 신분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 사 씨를 **거짓말과 죄 뒤집어씌우기**(누명, 陋名)로써 쫓아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계집종 설매에게 **팔을 지지는 형벌**을 가했는데, 이러한 짓거리들은 미운 짓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르미의 삶을 제 마음대로 짓이기는 **몹쓸 짓**이자, 즉 다르미의 몸과 마음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더 나아가 목숨을 죽일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아 그를 제 마음대로 부리려는 **모지락스러운 몹쓸 짓**인 것이다. 이러한 짓들은 멀리하고 싶어 하는 미운 짓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몹쓸 짓인 것이다.

그리고 동청의 검은 꾀(계략, 計略)들, 보기를 들자면, 옥가락지를 몰래 훔쳐내 냉진의 목에 채워 유한림으로 하여금 사 씨의 정절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꾀, 교 씨의 갓난아들을 죽여 사 씨를 모함하려는 꾀, 자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유한림의 글을 몰래 훔쳐 엄승상에게 모함한 뒤 왕명으로 유한림을 죽이려던 꾀들은 교 씨에게는 감탄을 자아내는 것들이었지만, 그 알속(내용, 內容)은 당하미에게는 소름이 끼치도록 **몹쓸 일들**이다. 이러한 일은 당하미가 그 당함을 그만 둘 자유가 없는 한, 달리 말해, 몰래 느닷없이 닥치는 것인 한, 결코 '싫은 것'을 넘어선 것이다. 몹쓸 일들은 보통 당하미가 그것을 내켜하지 않을지라도 피할 수 없이 일어나고 만다. 즉 그것들은 당하미의 자유를 앗아가 버린다.

동청의 꾀들은 우리가 마시길 싫어하는 술을 억지로 마셔야 하는 경우와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일들은 누군가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의 삶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다. **깨뜨림**

은 단단한 어떤 것을 조각조각 나누는 것이자,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을 넘어섬으로써 소중히 보호되어야 할 어떤 금기(禁忌)가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옥가락지를 훔치는 단순한 사건, 또는 『오델로』(셰익스피어 비극 작품)에서 이아고가 오델로의 선물 손수건을 데스데모나에게서 훔치는 사건은 부부 사이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결국 그 둘을 갈라놓거나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섬뜩하다. 그리고 힘없고 앙증맞은 갓난아기를 깔아뭉개 죽이는 짓이나 자신을 받아준 상전을 모함해 죽이려 하는 일들은 그 자체로 섬뜩하다. 섬뜩한 일들은 보통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숨겨져 있다가 번개처럼 드러나 누군가의 온 삶을 단칼에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 그만 둘 자유가 있는 싫은 일이 아니라 털이 곤두설 정도로 놀라자빠질 **섬뜩한 몹쓸 일들**이다.

교 씨와 동청 그리고 그 무리가 저지른 짓들은 한결같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폭력이나 아첨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사 씨 부인이나 유한림에게 소중한 것들을 **가로채거나 빼앗거나 무너뜨리거나 부수려는 뜻**에서 빚어진 것들이다. 그들 무리가 이러한 몹쓸 뜻을 앞서 세운 뒤에 몹쓸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저지른 짓에서만 몹쓸 것들이 아니라, 그 세운 뜻과 품은 바람 그리고 그 먹은 마음에서 모두 몹쓸 사람들이 된다. 교 씨가 사 씨의 아이를 떨어뜨리려 했던 일 역시, 그 일이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 뜻과 바람 그리고 마음 모두 몹쓸 것들인 몹쓸 일이지만, 다만 그 '몹쓸 일'은 그것이 몹쓸 결과를 낳지 않았고, 그 일이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까닭에 '몹쓸 일'로 선고되지만 않았을 뿐이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어떤 몹쓸 일은, 그것이 아무런 몹쓸 결과도 낳지 않은 한, 어떤 의미에서는 '몹쓸 일'이 못 된다. 우리는 이런 때 보통 '**천만다행(千萬多幸)**'이라고 말하곤 한다. 몹쓸 뜻이 세워지고 몹쓸 짓이 저질러졌음에도 그것이 곧바로 몹쓸 일의 일어남에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그것의 일어남을 막는 어떤 요소가 가로놓여 있는 셈이다. 몹쓸 일을 가로막는 것은 하늘일 수도 있고, 어떤 우연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누군가의 숨은 '바른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 몹쓸 일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때 '몹쓸 일'이 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못했을 때, '몹쓸 뻔한 일'이 된다.

교 씨 무리의 몹쓸 짓은 누군가의 목숨이나 소중한 재산 또는 명예 등을 앗아가 버리기 위해 저질러졌지만, 그 결과는 당하미의 대처 방식에 따라 그때마다 달라졌다. 갓난아기 장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고, 춘방은 모함을 당했지만 저항하거나 방어할 힘이 전혀 없어 속절없이 죽임을 당했으며, 설매는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교 씨의 잔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들에게 저질러진 몹쓸 짓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이와 달리 사 씨의 몸에 밴 아들처럼 그 몹쓸 꾀에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 씨와 유한림은 몹쓸이들의 거듭되는 몹쓸 짓들을 하늘의 도움을 받아 피하거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물리친다. 그 둘은 마침내 그 몹쓸 무리의 뿌리가 되는 교 씨를 심판(審判)함으로써 모든 것을 옛날의 '**본디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다. 이러한 행복한 결말은 몹쓸 짓이 착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선징악'의 악 개념이 미움이나 싫음 또는 나쁨과 같은 낱말들로는 올바로 잡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저질러진 악한 짓들은 그 결말이 당하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거나 부술 만큼 **끔찍**할 뿐 아니라, 그 결말이 갑작스럽게 또

는 자신의 의도에 거슬러 강제로 집행되어 **섬뜩**하기도 하다. 당하미는 넋을 잃고 쓰러지거나 무서움에 떨며 이리저리 달음질치거나 짐승처럼 외마디 소리를 질러대거나 목을 놓아 울거나 한다. 그럼에도 저질저린 결과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나 결코 돌이킬 수 없다. 당하미는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갈 수조차 없어 죽음을 결심한다. 만일 당하미에게 하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을 것이다.

끔찍하고 섬뜩하고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짓은, 그것이 일어나 버리는 한, 누구도 피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짓에 당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무너진 그들 자신의 삶을 본디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不可能)**해지고 만다. 특히 갓난아기 장주의 죽음은 너무도 불쌍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일'은, 그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무기력(無氣力)**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죽은 갓난아기를 되살리는 것이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에 대한 생각 자체를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되살림 생각을 갈음해서 적어도 억울하게 몹쓸 일을 당한 사람들의 **한(恨)을 풀어주려** 하거나, 마뜩이 우리는 그 몹쓸 일을 불러일으킨 것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심판(審判)**하고, 그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거기에 맞는 **벌(罰)**을 내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미 심판자의 처벌(處罰)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다시금 몹쓸 짓에 가깝게 된다. 미루(만일)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자를 법의 이름으로 죽인다면, 우리의 사람 죽이기 또한 **똑같이 몹쓸 짓**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로써 죽임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끝까지 **착한 사람**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몹쓸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수'를 베풀고자 해야 한다. 착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목숨과 같은 것을 앗아갈 수 없다. 달리 말해 삶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떳떳한 이름으로 펼쳐질지라도, 몹쓸 일이 된다.

몹쓸 짓을 똑같은 몹쓸 짓으로 되갚는 일은 옳기는 하지만 바르지는 않다. 우리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구조가 가진 악의 성격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처첩제도는 악한가? 신분제는 악한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가 기관이 아니 한 집안의 가장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악한가?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만일 우리가 이때의 '악한 것'을 '몹쓸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처첩제도는 그 안에 인정투쟁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처와 첩이 서로에게 몹쓸 짓을 하기 쉽다는 점에서 악하다고 할 수 있고, 신분제는 약자 신분의 사람이 그의 상전에 완전히 예속되어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한 그 자체로 악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적 재판의 권한은, 그것이 신분제 구조에 근거한 것인 한, 이미 악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가 바라는 '**보다 나은 삶**'을 살 권리를 갖는다. 이때 우리가 '누구나'라는 말과 '저마다'라는 말을 존중한다면, 신분제에 의한 차별은 이미 이러한 권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박탈하는 몹쓸 짓임을 알 수 있다. 종살이는, 종이 스스로 종으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이라고 알고 선택하지 않은 한, 달리 말해, 날 때부터 종으로 강제되거나 그에게 종살이 이와의 다른 삶의 방식이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그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권리를 빼앗는 몹쓸 일이다. 교 씨는 첩으로서 자신이 바라는 보다 나은 삶, 말하자면, 정실부인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가 첩이 된 까닭은 가난 때문인 듯 보

인다. 그녀는 말하자면 돈에 팔려 온 셈이다.
그렇다면 한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신분적 차별이 있다면, 그러한 사회 구조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가 바라는 보다 나은 삶을 살 길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는 **몹쓸 일**이 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악의 모두잡이는 '몹쓸'이라는 말로써 나타낼 수 있다. **몹쓸 짓**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의 저질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하미가 더 이상 그 자신이 바라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자신의 삶조차 유지해갈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마저 잃게 되는 짓을 말한다. 몹쓸 짓을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론 사회 구조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보이지 않는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악에 대한 새로운 뜻매김을 "몹쓸"이라는 낱말로써 마련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장만한 낱말은 새롭게 가다듬어져야 하고, 어느 정도는 그 뜻을 제 멋대로 풀어내거나 없던 뜻까지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일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뜻매김을 통해 악의 현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마당을 열게 된다.[27]

---

27 악에 대한 새로운 뜻매김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악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